

-(으)ㄹ까 하다

~할까 생각 중이다

한국어의 계획 표현 가운데 가장 느슨한 표현입니다.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생각을 굴려 보는 단계이며, 바로 그 점이 이 표현을 유용하게 만듭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까 하다	가다 → 갈까 해요
자음으로 끝남	-을까 하다	먹다 → 먹을까 해요
ㄹ로 끝남	-까 하다	만들다 → 만들까 해요
접은 생각	-(으)ㄹ까 했는데	갈까 했는데
1인칭만	다른 사람에게는 볼 가	동생이 갈까 해요(×)
다른 표현	-(으)ㄹ까 싶다 / 생 각하다	갈까 생각 중이에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-(으)ㄹ까요?와 똑같으며 ㄹ 탈락형도 같습니다: 만들다 → 만들까 해요.

고려 중인 생각을 나타냅니다: 주말에 여행을 갈까 해요. 아직 아무것도 예약하지 않았고, 마음을 바꿀 여지를 남겨 둡니다.

자기 내면의 고민을 나타내므로 1인칭에서만 씁니다. 다른 사람이 고민 중인 것은 이 표현으로 전할 수 없으며, 그럴 때는 추측을 더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.

과거형은 보통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: 갈까 했는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.

■ 예문

- 1 주말에 여행을 갈까 해요.
- 2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해요.
- 3 내년에 한국어 시험을 볼까 해요.
- 4 김치를 직접 만들까 하는데 어려울까요?
- 5 어제 갈까 했는데 비가 와서 그만뒀어요.
- 6 이사할까 해서 집을 좀 보고 있어요.

■ 비교

-(으)려고 하다

-(으)려고 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, -(으)ㄹ까 하다는 아직 저울질하는 중입니다. 뒤의 것이 확신의 정도가 눈에 띄게 낮습니다.

갈까 해요. (갈지도 모른다) / 가려고 해요. (갈 생각이다)

-기로 하다

정도의 반대쪽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. -기로 했어요는 이미 내린 결정을 나타내며, 다른 사람과 함께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.

갈까 해요. → 가려고 해요. → 가기로 했어요. → 갈 거예요.

-(으)ㄹ까요?

같은 관형형이지만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. -(으)ㄹ까요?는 상대방에게 묻고, -(으)ㄹ까 하다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을 전합니다.

갈까요? (같이 갈까요?) / 갈까 해요. (갈까 생각 중이다)

■ 주의

× 김치를 만들을까 해요.

○ 김치를 만들까 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ㄹ까요?, -(으)ㄹ게요와 마찬가지로 짧은 형태를 씁니다.

× 동생이 유학을 갈까 해요.

○ 동생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

이 표현은 자기 자신의 고민을 나타냅니다. 다른 사람의 생각은 추측으로 전해야 합니다.

× 어제 갔을까 해요.

○ 어제 갈까 했어요.

시제는 관형형 안이 아니라 하단에 붙입니다. 갔을까 해요라고 하면 누군가가 갔는지 궁금해하는 뜻이 됩니다.